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들의 화주 시주 꼭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 (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인도 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났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등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인도돕기)



◀2003년 참여불교세계대회 참가자들이 23일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전쟁 반대와 평화 염원을 기원하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북한산 관통노선 폐기하라

조계종 총무원·호남 본말사 주지 정부에 공약이행 촉구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들과 호남 지역 교구 본말사 주지스님들이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노선을 폐기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21일과 27일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노선 즉시 폐기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참여정부의 관통노선 폐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중앙종회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산 관통노선 백지화와 대안노선 검토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이 되고 나서도 똑같은 약속을 했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고, 노선재검토위의 다수의견마저 관료들에 의해 무시되는 등 나라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종회 의원들은 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 전국 사찰의 수행자들과 불자들로부터 냉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엄중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금산사, 백양사 등 호남지역 6개 본사 및 각 말사 주지스님들도 "관통노선을 폐기하고 우회노선을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ia.com

대북 지원물품 출항식 불교단체들 인천항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이하 평불협), 진각종, 평화실권광주전남불교연대 등 불교계 단체들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물을 펼쳤다.
 28일 인천항 영진보세창구에서 열린 대북지원물품 출항식에서 평불협은 밀가루 30톤, 진각종은 설량 700포·대두 200박스 등을 광주전남불교연대는 전지분유 100개를 선적했다. 물품은 조선불교도연맹측에 전달된다. 남동우 기자

“한반도 전쟁 없어야”

참여불교세계대회 15개국 참가자 평화선언문 채택

마지막 분단의 땅 한반도에 전 세계 불자들의 평화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2003 참여불교 세계대회 참가자

정주 입동법률사무소
개업인사 드립니다.
 대표변호사 **박영만**
 (법명: 일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2-5 오성빌딩 501호
TEL 02)3476-5704
FAX 02)3476-5710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전 남: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경남 동부: (055)353-1196 제천: (043)644-4366 경북 서부: (053)547-3469

들은 23일 한반도 분단을 상징하는 임진각에서 평화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15개국 150여명 참석자들은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 △미국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해서는 안된다 △북한은 핵개발은 포기해야 한다 등 인류평화를 위한 간절한 염원을 결의했다.
 북한산 관통노선 저지를 위한 성명서도 채택했다.
 22일 옹인 삼성휴먼센터에서 열린 전체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역사와 문화가 보전돼 있는 북한산국립공원이 관통된다는 것은 '국립공원

은 비유부담을 더해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국민들 대다수의 열망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참석자 만장일치로 성명서 채택을 결의했다.
 대회는 21일 '불교의 올바른 사상', 22일 '불교의 사회참여'를 주제로 기조강연과 주제별 워크숍, 전체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여기서 나온 결과물들은 23일 공개심포지엄을 통해 일반 대중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밑거름이 됐다. 참석자들은 24-25일 청도 운문사와 경주 불국사 등을 순례하며 한국 불교 전통과 문화를 경험했다.

한국불교정보화사업단 발족

조계종, 8월중 사무실 현판식·활동 착수

한국전통사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불교정보화사업단이 발족했다.
 조계종은 불교정보화위원회(자문기구), 정보화실무협의회, 기술개발팀, 콘텐츠팀으로 구성되는 '한국불교정보화사업단'을 구성, 8월중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불교정보화사업단은 △전통사찰 관광안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통사찰 종합정보망 등 지식 정보화 및 종합 정보망 구축 △본말사 사이트 구축 등 불교계 IT 인프라 확립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을 주요 사업 방향으로 정하고, 세부 실행 계획안 마련에 들어갔다.
 한명우 기자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유리 거울은 내 몸을 비추고, 종이 거울은 내 마음을 비추었다.'
 영국 어린이 독서 캠페인 운동인 '북스타트 운동(Book Start)'은 책 읽는 어린이들이 읽기, 쓰기 등 11개 분야의 학습 능력 측정에서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온 후 국민적 캠페인으로 거듭났다.
 국내에서도 각 단체나 신문, 방송사별로 독서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경기 안성 도피안사에서 출범한 '종이거울 자주보기 운동본부'(본부장 조흥식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독서운동은 정신의 자각과 성숙을 목표로 한다
‘종이거울 자주보기’ 운동
 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방상복 신부, 이각범 정보통신대 교수, 신희섭 KIST학석기연상연구단장, 박재동 애니메이션 감독, 윤용숙 여성문제연구소장,

안장현 사진작가, 이재운 소설가, 송영식 변호사, 박성배 뉴욕주립대 교수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31명의 지도위원들은 취지문을 통해 "오직 개개인의 자각을 통한 성숙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행복을 이루는 길이란 확신으로 독서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운동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매달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어야 한다.

또 매달 회비(월 1만원)에 관계없이 좋은 책, 한 권씩을 받아볼 수 있다. 저자의 출판기념 강연회와 사인회에 초대되며, 책을 구하기 어려운 곳에 자주, 기쁜 마음으로 책을 증정하기도 쉽다. 안성 도피안사 수행 프로그램 참여시 혜택도 주어진다.
 이 운동을 기획한 도피안사 주지 송암스님은 "말과 글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법"이다. 책 한 권의 여유를 찾아 힘들고 지친 마음을 순화하고 나아가 지혜의 삶을 서원하자"고 말했다. (031)676-8700 김재경(취재부 차장)

대불련 40돌... 동문을 찾습니다

대학생 포교기금 마련 후원회원 됩시다

불자학생들을 돕고, 대학생 포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자 및 동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참여방법:
 일시 후원 - 1구좌(1만원 이상)
 정기 후원 - 월1구좌 자동이체

▶문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02)732-0239, 739-0913

▶계좌번호:
 국민은행 023-01-0565993
 농협 053-01-252868
 조흥은행 390-01-071917
 예금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동문찾기 신청
 현대불교신문
 www.buddhanews.com
 대불련 총동문회
 www.daebul.or.kr

공동주최: 대불련 총동문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현대불교신문사

스리랑카 수재민 돕기

불교국가 범우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대한불교 조계종과 본지를 비롯한 불교계 언론인들이 50년만의 최악의 폭우로 실의에 빠진 스리랑카 수재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펼칩니다.
 스리랑카는 지난 5월 남부지역을 강타한 폭우로 800여명의 인명피해와 5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교국가 스리랑카 국민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주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후원: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불교신문, 법보신문, 주간불교, 현대불교신문
 성금 보내 주실 곳: 총무원 모금 계좌 - 국민은행 023501-04-004943 (재) 불교중앙교원
 - 농협 053-01-255568 (재) 불교중앙교원

세계적 아름다운 공간 **vivaldi** **한라비발디**

漢拏 명품에는 '격' 이 있습니다
 아름답되 속되지 않고 부드럽되 흔들리지 않는다!
 정직하고 깨끗한 기업 한라건설이 아파트를 짓는 철학입니다.
 우아한 기품 속에 변함없는 가치가 빛나는 대한민국 명품 아파트 **한라 비발디**

용인 동백지구 B형초 분양
 2003년 하반기 주택공급계획

용인 동백지구 C3-B1L 342세대
 용인 동백지구 C5-B1L 304세대
 용인 동백지구 C10-B1L 248세대
 용인 동백지구 B1L 590세대

남양주 호정지구 B1L 635세대
 용인 구갈지구 2B1L 70세대
 수도권 2,895세대

● 총 5,085 세대 분양 예정

8년필리 102-9434-5797

한라건설
 www.hallapart.co.kr